

## 少陰人の 心之範圍에 대한 고찰

<sup>1</sup>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講師 · <sup>2</sup>韓醫學古典研究所 博士後研究員  
신상원<sup>1,2\*</sup>

### A Study on the Heart's Imitation[心之範圍] of So-eumin

Shin Sang-won<sup>1,2\*</sup>

<sup>1</sup>Lecturer at the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sup>2</sup>Post-doctoral Researcher at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Objectives** :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少陰人 心之範圍’ and to determine its clinical implication.

**Methods** : First, the meaning of the verb ‘範圍’ was examined in 『IChing · XiCi(周易繫辭傳)』 from where it originated. Based on the findings, the meaning of ‘心之範圍’ in the context of the nature and emotion[性情] of So-eumin as explained in the 『DongUisusebowon(東醫壽世保元)』 was further investigated. Moreover, the clinical significance of the observation of ‘心之範圍’ in relation to determining prognosis was discussed in regards to ‘visceral syncope[藏厥]’ and ‘exuberating yin separating yang[陰盛隔陽]’ which come under the severe symptoms[危證] category in the disease pattern of So-eumin.

**Results** : ‘範圍’ as mentioned in 『IChing · XiCi(周易繫辭傳)』 refers to the process of creating a framework that takes after the tendencies of the patterns of change of the external world that influences mankind. The objective of this process is to prepare for the excessiveness and insufficiency of the change that happens in the external world so as to ultimately protect all existences. The workings of ‘範圍’ could be assumed on a personal level as well. As the nature and emotion of So-eumin is closely related to the purpose and object of ‘範圍’, Yi Jema suggested that through observing whether the So-eumin exhibits ‘心之範圍’ or not, that it could be determined whether his/her innate nature is being properly exercised or not.

**Conclusions** : Whether one’s agitation calms down or not even for a moment i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prognosis of the entire disease, while its calming-down relies on proper functioning of ‘心之範圍’. The way to determine this is through observation of the manifest attitude of the So-eumin. If the So-eumin displays a poised and autonomous[綽綽卓卓] attitude even for a moment, it could be understood as the ‘心之範圍’ process being properly functioning, indicating the overall direction to be heading towards relief of the sense of instability, allowing for a positive outlook on treatment.

**Key words** : Heart’s Modeling(心之範圍), So-eumin(少陰人), instability(不安定之心), visceral syncope(藏厥), exuberant yin separating yang(陰盛隔陽)

\* Corresponding author : Shin Sang-won.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el : +82-2-961-9183, E-mail : rulr@nate.com

Received(May 11, 2020), Revised(May 29, 2020), Accepted(May 29, 2020)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I. 序論

「心之範圍」는 『東醫壽世保元』 「少陰人胃受寒裏寒病論」에서 藏厥, 陰盛隔陽의 病證의 예후를 판정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술어이다. 이 술어는 한의학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생소한 개념이며, 『東醫壽世保元』에서도 總論 및 타 四象人 病證論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유독 少陰人 病證論에서만 사용되어 그 의미에 대한 저자의 설명도 충분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李濟馬는 이 용어를 生死의 기로에 있는 엄중한 상황인 少陰人病 危證의 예후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範圍」에 대한 고전 문헌의 언급은 『周易繫辭傳』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周易』이 동양의 여러 학문에서 공통적으로 중시되었던 고전임을 생각할 때, 李濟馬가 말한 「心之範圍」의 의미도 여기에서의 「範圍」의 용례에 의거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李濟馬는 의학자이면서도 儒學을 깊이있게 연구한 儒學者로 볼 수 있으며 자연히 『周易』에 대한 견해가 그의 저작 중 많은 부분에서 발견되는 점을 볼 때 李濟馬가 『周易』의 範圍의 개념을 수용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보인다.

그러나 「心之範圍」에 대한 현대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여러 번역서에서는 당연하게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지만, 현대의 사전적 정의에 따라 「範圍」의 의미를 단편적으로 해석하고 있을 뿐인데<sup>1)</sup> 그러한 방식으로는 전후 맥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 문제는 少陰人의 病證 중에서도 危證에 관련되어 있는데, 체질의 유형에 따른 강점과 약점을 전제로 하는 체질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危證은 해당 체질 유형의 약점에 해당 하는 특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少陰人病 危證에 제시된 「心之範圍」라는 용어를 이해하는 문제는 임상적 의미와 함께 少陰人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周易繫辭傳』을 중심으로 「範圍」의 본래적 의미를 상고하고 李濟馬의 기타 저술에 언급된 「範圍」의 용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範圍」가 활용된 배경을 살펴볼 것이며, 이어서 『東醫壽世保元』에서 少陰人의 맥락으로 원용된 「心之範圍」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또, 이러한 연구의 맥락에 연결되어 있는 少陰人의 藏厥, 陰盛隔陽, 특히 躁의 의미를 중심으로 예후 판단 기준으로 제시된 「心之範圍」의 임상적 의미도 밝히고자 한다.

## II. 本論

### 1. 「範圍」 개념의 연원

#### 1) 『周易繫辭傳』의 「範圍」

『周易·繫辭傳』 “範圍天地之化而不過, 曲成萬物而不遺, 通乎晝夜之道而知, 故神无方而易无體.”<sup>2)</sup>

「範圍」라는 말의 의미는 『周易繫辭傳』의 문장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무궁하게 펼쳐지는 天地之化가 中道를 따라 過不及이 없이 나타나도록 일정한 틀을 제시하는 것을 「範圍」라고 하였다. 「範圍」의 문자적 의미에 대해 朱子는 鑄物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鑄型」에 비유하여 “範은 金을 鑄造함에 模範이 있는 것과 같으며, 圍는 匡郭이다.”<sup>3)</sup>라고 하였으며, 小註에서 “範은 金을 鑄造함에 範을 만드는 것이며, 圍는 안을 싸는 것이다.”<sup>4)</sup>라고도 하였다. 「範」은 鑄型을 떠서 만들거자 하는 원형의 모습이며, 「圍」는 그것을 둘러싸는 틀이라는 설명이다. 朱子는 「範圍한다」는 것의 의미를 「본이 되는 대상을 모사한 틀을 갖추는 것」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範圍」가 언급된 위 문장의 맥락을 살펴보면, 「天地之化를 範圍하여 過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였는

1) 현재 사용되는 『四象醫學』 교과서에는 「마음의 범위」로 번역되어 있으나(송일병 외.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06. p.568.), 범위를 「일정하게 한정된 영역」, 「어떤 것이 미치는 한계」와 같은 현대어의 의미로 독해한다면 문맥을 이해하기 어렵다.

2)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서울. 明文堂. 1999. p.1008.  
3)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서울. 明文堂. 1999. p.1009. “範, 如鑄金之有模範, 圍, 匡郭也.”  
4)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서울. 明文堂. 1999. p.1009. “範, 是鑄金作範, 圍, 是圍裏”

데, 이에 대해 朱子는 “天地의 변화는 무궁하며 聖人は 그로 인해 範圍하여 中道를 지나치지 않도록 하니 이른바 裁成이라는 것이다.”<sup>5)</sup>라고 설명하였다. 天地의 변화는 본래 무궁하여 宇宙萬物에 영향을 미친다. 이 변화는 우주 전체의 차원에서는 일정한 원리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개별적인 事物 차원에서 天地의 변화의 때와 상황에 맞게 대응하지 못하면 中道를 넘어 過不及이 발생하여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萬物의 化育을 해칠 수 있다. 聖人は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天地之化를 ‘範圍’함으로써 天地 運轉의 過不及에 따라 萬物 化育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앞서 鑄物에 비유한 설명을 원용하여 이 경우를 해석해보면, ‘範圍’하여 모사하여 감싸고자 하는 대상은 ‘天地之化의 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朱子는 한 해의 시간적 흐름을 四時와 節候의 종류로 구분하는 것을 ‘範圍’의 구체적인 예로 들었는데<sup>6)</sup>, 이 예는 연간 天地에서 나타나는 기후 변화 흐름의 규칙성을 파악하여 변화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매 년 발생하는 기후의 변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天地之化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 예측 가능토록 하여 過不及에 대비하여 萬物이 안정적으로 化育되도록 돕는 것이 範圍의 목적인다고 할 수 있다.

‘範圍’의 결과가 비록 실체에 기반한 ‘틀’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틀은 고정된 형식적 규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통해 대상을 통제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朱子가 말한 ‘中道’란 본래 형식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며 때와 상황에 맞게 中을 찾는 ‘時中’의 의미가 있다<sup>7)</sup>. 따라서 天地之化를 ‘範圍’한다는 것은 일

정한 한도 내에서 변화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변화를 관찰하여 상황마다 대응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萬物을 보존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程子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範圍의 이해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였는데, 天地之化를 範圍한다는 것은 天의 무한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인간이 관찰 가능한 영역’에 대해 일정한 규모를 세워 天地之化를 지속적으로 관측하는 것이지, 天地之化 전체를 일정한 형식적 규범에 예측시켜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sup>8)</sup>.

같은 맥락에서, ‘範圍’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자신만을 위하고자 하는 愆心이 없어야 하고 공적인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우주의 변화를 편견없이 관찰해야 中道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마음에 외부와의 소통을 가로막는 愆心이 자리잡고 있다면 때와 상황에 따른 中을 바르게 인식할 수 없으므로 ‘範圍’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朱子가 天地之化를 範圍하는 주체로 ‘聖人’을 명시한 것은 이러한 요건을 포괄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주의해야 할 것은 範圍하는 행위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실재하는 사물에 대한 관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朱子는 張載의 『正蒙』의 논설<sup>9)</sup>을 인용하여 範圍를 佛家の 因緣과 비교하며 佛家の 인식론을 비판하였는데, “範圍는 裁成하는 것과 같으니, 聖人は 性을 다하시므로 능히

是乃平常之理也.”

5)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서울. 明文堂. 1999. p.1009. “天地之化, 無窮而聖人, 爲之範圍, 不使過於中道, 所謂裁成者也.”

6)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서울. 明文堂. 1999. p.1009. “試學一端, 如一歲分四時節候之類, 以此做個塗轍, 更無過差, 此特其一耳.”

7) 金赫濟 校閱. 原本備旨 大學中庸(中庸). 서울. 明文堂. 2010. pp.14-15. 『中庸章句』 “君子之中庸也, 君子而時中, 小人之中庸也, 小人而無忌憚也.”, “蓋中無定體, 隨時而在,

8)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서울. 明文堂. 1999. p.1009. “範圍天地之化, 天本廓然無窮, 但人以目力所及, 見其寒暑之序, 日月之行, 立此規模, 以窺測他天地之化, 不是天地之化, 其體有如城郭之類, 都盛其氣.”

9) 朱熹. 近思錄. 동양고전종합DB. [cited May 9, 2020]; Available from: [http://db.cyberseodang.or.kr/front/alphaList/BookMain.do?bnCode=jti\\_3a0403&titleId=C598@](http://db.cyberseodang.or.kr/front/alphaList/BookMain.do?bnCode=jti_3a0403&titleId=C598@) “橫渠先生이 말하기를, 釋氏는 망령되어 天性을 뜻하면서 天의 用을 範圍할 줄을 모르고, 도리어 六根의 작은 것을 天地에 인연한 것이라고 여겨서 능히 다 밝히지 못하였으니 天地日月을 誣陷하여 幻妄이라 하였다.(橫渠先生曰, 釋氏妄意天性而不知範圍天用, 反以六根之微因緣天地, 明不能盡, 則誣天地日月爲幻妄.)”

天地之道를 裁成하실 수 있었다. 釋氏는 性을 알고자 하였지만 範圍의 用을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일찍이 性을 알지 못한 것이다. ‘六根이 다 天地에 근본하니 六根이 일어나고 없어짐에 實相이 없다’하였으니 天地日月을 다 幻妄으로 본 것이다.”<sup>10)</sup>라고 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範圍는 佛家의 緣起說과 같이 우주를 空으로 보는 관점이 아닌, 인간의 性을 바탕으로 事物을 실재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範圍’란 인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세계의 변화 양상을 인식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경향성을 본뜬 틀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외부 세계 변화의 過不及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萬物을 보호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철저히 현실 속에 존재하는 事物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틀을 활용해 상상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대응해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範圍’의 개념과 유사한 뜻을 가진 현대 용어로 ‘모델링(modelling)’이 있다. 모델링은 모델을 보고 닮게 만든다는 뜻으로부터 파생되어 현실 속의 다양한 대상을 모사하는 일에 매우 폭넓게 사용된다. 학술적으로는 자연과학, 공학, 사회과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의 특성을 모사하고 체계화하여 대상의 변화를 예측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한다. 대상을 본떠 모사한다는 기본적인 의미를 비롯하여 대상의 변화를 예측한다는 파생된 의미에 이르기까지 ‘範圍’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2) 李濟馬의 ‘範圍’ 용례

李濟馬가 ‘範圍’를 언급한 사례가 『東醫壽世保元』 이외의 저술에서도 나타나는데, 용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李濟馬가 생각한 ‘範圍’의 의미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10) 朱熹. 近思錄. 동양고전종합DB. [cited May 9, 2020]; Available from: [http://db.cyberseodang.or.kr/front/alpha/List/BookMain.do?bnCode=jti\\_3a0403&titleId=C598](http://db.cyberseodang.or.kr/front/alpha/List/BookMain.do?bnCode=jti_3a0403&titleId=C598) “範圍, 猶裁成也, 聖人盡性, 故能裁成天地之道. 釋氏欲識性而不知範圍之用, 則是未嘗知性也, 謂六根悉本天地, 六根起滅, 無有實相. 天地日月, 等爲幻妄.”

『格致藁』 「反誠箴離箴」에서는 天下의 대중을 선도하는 방식을 指揮, 糾合, 範圍, 馭驅의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範圍에 대해서는 “範圍必有其軌”라고 하여 ‘궤적’을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설명하였다<sup>11)</sup>. ‘궤적’이란 대중들이 이미 익숙하고 편안하게 여겨온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데, 이는 당대의 사회, 자연 환경에 맞추어 적응해 온 것이다. 範圍는 이에 근거하여 대중을 포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문에 나타난 指揮와 馭驅의 바탕인 道, 法은 보다 원리적인 측면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軌와 차이가 있고, 糾合의 바탕인 率은 앞장서서 새로운 가치를 구현하여 대중을 선도해가는 것이므로 현재의 모습을 중심으로 포용하는 範圍의 軌와 차이가 있다.

『格致藁』 「獨行篇」에서는 仁義禮智의 善을 체화한 사람의 마음이 갖는 특징에 대한 서술 중 仁者의 경우 대중들을 포용하고 量者의 경우 사람을 불러서 용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불러서 용납할 수 있으므로 능히 대중을 範圍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12)</sup>. 이때 量者의 範圍는 大衆을 적극적으로 불러 모으고 감싸안아서 편안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지는 「獨行篇」의 문장에서 公器, 時世, 地局, 處勢의 네 가지 요소에 대해 설명했는데 時世에 대해서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각자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만나 黨與를 이루도록 하는 權力이 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勸力이 크면 한 시대 전체를 範圍하고 작으면 저갓거리에 드나드는 일에 모두 時世가 작용한다고 하였다<sup>13)</sup>. 이때 範圍는 같은 가치 아래에 모인 사람들의 힘을 바탕으로 한 시대의 사회 전체를 편안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문장에서 範圍는

11) 송일병 외 5인. 사상체질과 임상편람(格致藁). 서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2009. p.27. “指揮必有其道, 糾合必有其率, 範圍必有其軌, 馭驅必有其法”

12) 송일병 외 5인. 사상체질과 임상편람(格致藁). 서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2009. p.36. “仁者之心, 長於容衆, 量者之能, 長於招納, 故其材善招納人, 而能於範圍大衆.”

13) 송일병 외 5인. 사상체질과 임상편람(格致藁). 서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2009. p.37. “時世者, 一世人民行于一世, 各自修勸, 各者交遊, 直者, 與直者相得, 曲者, 與曲者相得, 名實稱著, 黨與漸成之權也. 大而範圍一世, 小而出入市井, 皆有時世.”

공통적으로 인간 집단이 살아가는 모습을 크게 포괄하여 집단에서 통용되는 규범을 제시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格致彙』에 나타난 ‘範圍’의 용례는 한 사회의 大衆을 대상으로 한 리더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데, 대체로 시대의 대중이 익숙하게 여기는 방식을 통해 편안함을 제공하여 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周易』의 ‘範圍’ 개념과 비교할 때, 각 시대의 상황을 인식하고 대중들을 보호하여 편안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2. 少陰人の ‘心之範圍’

少陰人の ‘心之範圍’에 대한 언급은 少陰人 裏病에서 藏厥, 陰盛隔陽의 病證의 예후를 관정하는 방법에 대한 서술에서 나타난다. 여기에서 ‘心之範圍’는 ‘有定無定’의 여부를 통해 살피기도 하며 ‘綽綽’, ‘耿耿’이라는 심리적 태도를 통해 관찰하기도 하였다.

『東醫壽世保元』 「少陰人胃受寒裏寒病論」 “凡觀少陰人病泄瀉初證者，當觀於心煩與不煩也，心煩則口渴而口中不和也，心不煩則口不渴而口中和也。觀少陰人病危證者，當觀於躁之有定無定也，欲觀躁之有定無定，則必占心之範圍有定無定也。心之範圍綽綽者，心之有定而躁之有定也，心之範圍耿耿者，心之無定而躁之無定也。心雖耿耿忽忽，猶有一半時刻綽綽卓卓，則其病可治，可治者，用薑附而可效也。(무릇 少陰人 病證의 泄瀉 初證을 관찰함에는 마땅히 心煩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관찰해야 하며, 心煩하면 口渴이 있으면서 口中이 不和하니, 心煩이 없으면 口渴이 없고 口中이 和하다. 少陰人病의 危證을 관찰함에는 마땅히 躁의 有定無定을 관찰해야 하며, 躁의 有定無定을 관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心之範圍의 有定無定을 접쳐보아야 한다. 心之範圍가 綽綽한 경우에는 心이 안정되어 躁도 안정될 것이며, 心之範圍가 耿耿한 경우에는 心이 안정되지 않아 躁도 안정되지 않을 것이다. 心이 비록 耿耿忽忽하더라도 오히려 반시각 정도라도 綽綽卓卓함이 있다면 그 병은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니 치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乾薑, 附子를 써서 효과를 거

둘 수 있다.)”<sup>14)</sup>

한편, 이에 앞서 서술된 藏厥의 원인, 예후에 대한 설명에서 ‘喜好不定’, ‘君子寬平心’ 등 少陰人の 심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술어들이 나타난다. 이들은 ‘心之範圍’와 함께 藏厥이라는 병의 성질을 설명하고 있어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心之範圍’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 「少陰人胃受寒裏寒病論」 “論曰，少陰人，喜好不定而計窮力屈則心煩躁也。少陰病，傷寒欲吐不吐，心煩但欲寐者，此非計窮力屈者之病乎。蓋喜好者，所慾也，何故，至於計窮力屈而得此少陰病乎。何不先用君子寬平心乎。然，初證，傷寒欲吐不吐，心煩但欲寐者，早用藥，則猶可免死也，其病至於躁無暫定而厥，則勢在極危也，豈不可憐乎。此證，當用芩芩湯，四逆湯，官桂附子理中湯，吳茱萸附子理中湯。(논하여 말하길, 少陰人이 喜好不定하여 計窮力屈하게 되니 心煩躁한 것이다. ‘少陰病, 傷寒欲吐不吐, 心煩但欲寐’라고 한 것이 計窮力屈한 자의 病이 아니겠는가? 대개 喜好라는 것은 慾心내는 바이다. 어떠한 까닭으로 計窮力屈함에 이르러 이 少陰病을 얻게 되었는가? 어찌하여 일찍부터 君子寬平心을 쓰지 않았는가? 그러나 初證인 ‘傷寒欲吐不吐, 心煩但欲寐’의 경우 일찍 用藥한다면 오히려 죽음을 면할 수 있거니와 그 병이 ‘躁無暫定而厥’에 이르면 병세가 극히 위험한 것이니 가련하지 않겠는가? 이 증에는 마땅히 芩芩湯, 四逆湯, 官桂附子理中湯, 吳茱萸附子理中湯을 써야 한다.)”<sup>15)</sup>

따라서 ‘喜好’로 대표되는 少陰人 性情 발현의 특징과 ‘不定’으로 표현되는 少陰人の 不安定之心, 그리고 少陰人の 수양의 관건이 되는 ‘君子寬平心’을 통해 少陰人の ‘心之範圍’의 의미와 ‘心之範圍’의 상태를 드러내는 ‘綽綽’, ‘耿耿’의 심리적 태도의 의미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14) 송일병 외.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06. pp.663-664.

15) 송일병 외.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06. p.663.

### 1) 개인적 차원에서의 ‘範圍’

『周易』에서는 聖인이 天地의 변화를 대상으로 ‘範圍’하는 것을 말하였는데, 이를 미루어 한 개인의 차원으로 좁혀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한 개인이 자신의 주변에서 마주치게 되는 변화 상황을 대상으로 ‘範圍’하는 것을 상정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少陰人の 心之範圍를 이해해 볼 수 있다.

『中庸章句』에서 朱子は 개인 차원에서부터 자신의 마음과 몸을 다스려 주위 상황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天地가 萬物을 안정적으로 化育하는 작용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과 이어져 있다고 보았으며<sup>16)</sup>, 이는 곧 『周易』에서 聖인이 天地之化를 ‘範圍’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실제로 朱子は 사람의 욕망과 감정의 문제를 재단하고 예방하는 것도 또한 範圍의 한 사례가 된다고 하였으며<sup>17)</sup>, 구체적으로는 視聽言動과 喜怒哀樂이 때와 상황에 비추어 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모두 範圍의 일에 속한다고 설명하였다<sup>18)</sup>. 그러므로 개인의 차원에서도 역시 ‘範圍’를 상정할 수 있으며, 이때 ‘範圍’는 喜怒哀樂이 주위의 상황과 中和를 이루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개인으로서의 少陰人也 자신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喜怒哀樂의 性情의 過不及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過不及의 편차를 줄여나가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範圍’를 고려할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에서 喜怒哀樂의 性情은 衆人, 別人 등 인간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란 결국 인간관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으며, ‘範圍’의 대상도 역시 자신이 마주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少陰人の ‘心之範圍’란 자신이 마주치는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리, 행동 등의 변화를 관찰하여 그러한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상의 변화를 미리 재단하고 이에 알맞은 감정과 행동을 함으로써 過不及을 조절하고 대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範圍’는 그 규모에 있어 天地에 대한 聖人の 範圍와 현격한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끊임없이 ‘範圍’하여 확충해나가는 것을 전제로 할 때 『周易』에서 말한 聖人の 範圍의 의미와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언급한 程子の 지적과 같이 ‘範圍’를 통해 하나의 형식적 틀을 만들어내는 데에 그치고 그 형식에 의존하게 된다면 애초의 ‘範圍’의 목적을 잃게 되며 오히려 개인적 차원에서 외부 세계를 차단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 2) ‘範圍’와 少陰人 性情의 관련성

‘心之範圍’가 『東醫壽世保元』에서 少陰人에 관련된 일부 내용에서만 언급되었고 太陽人, 太陰人, 少陽人 관련 내용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점에 대한 의문이 있다. 그러나 ‘範圍’에 관련된 직접적인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東醫壽世保元』의 ‘範圍’ 개념이 전적으로 少陰人에만 관련된 것이거나 다른 四象人과 무관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sup>19)</sup>. 다만 少陰人病의 危證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유독 心之範圍의 여부를 관찰하려 한 것을 볼 때, 최소한 ‘範圍’라는 행위의 성격이 少陰人の 稟性과 관련하여 少陰人이 지향해야 할 바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으리라 추정할 수는 있다. 따라서 ‘範圍’가 다른 四象人에서 언급되

16) 『中庸』에서는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이라 하여 喜怒哀樂이 中和를 이루었을 때 天地가 자리 잡아 萬物이 化育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朱子は 萬物이 본래 나와 一體이므로 나의 心과 氣를 다스리면 天地의 心과 氣 역시 다스려지므로 그 결과로서 萬物의 化育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金赫濟 校閱, 原本備旨 大學 中庸(中庸). 서울. 明文堂. 2010. p.11. 『中庸章句』 “蓋天地萬物, 本吾一體, 吾之心正則天地之心亦正矣, 吾之氣順則天地之氣亦順矣, 故其效驗至於如此.”)

17)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서울. 明文堂. 1999. p.1009. “人之生也欲動情勝, 聖人則爲之裁化防範, 此皆是範圍而使之不過之事否. 曰, 範圍之事闊大, 此亦其一事也.”

18)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서울. 明文堂. 1999. p.1009. “或曰, 如視聽言動, 皆當存養, 使不過差, 此便是否. 曰, 事事物物, 无非天地之化, 皆當有以範圍之. 就喜怒哀樂而言, 喜其所當喜, 怒其所當怒, 哀其所當哀, 樂其所當樂, 皆範圍也.”

19) ‘範圍’는 聖인이 萬物을 위해 우주 변화의 틀을 파악하는 행위로서 하나의 四象人 유형에 개별적 특성으로 한정되기 어려우며, 李濟馬의 다른 저작들에서도 四象人에 관련된 지은 설명을 찾기 어렵다. 또한 『東醫壽世保元』에서 ‘範圍’의 개념을 少陰人에 배속하였거나 이외의 다른 四象人과의 관련성을 배제하는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

지 않는 이유를 논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少陰人 稟性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한 논의가 되리라 생각된다.

우선 ‘範圍’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範圍’는 무궁무진하게 펼쳐지는 ‘天地之化’에 대응하여 조화를 이루어 萬物이 잘 化育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즉, 변화의 과불급에 의해 萬物의 化育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멸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聖인이 萬物을 아끼고 보호하여 길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한편, 少陰人の 性情은 深確한 樂性이 기초가 되는데, 樂性은 事物의 物的 속성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事物에 대한 惻隱之心을 일으키며<sup>20)</sup>, 이 마음의 端緒를 통해 事物을 아끼고 보호해 나가려 한다. 또한 少陰人の 喜情은 少陰人이 좋아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드는 黨與를 행하며 발견되는 것으로, 대상과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와 같이 少陰人の 性情이 추구하는 바는 ‘範圍’의 목적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範圍’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範圍’를 鑄型을 만드는 것에 비유한 朱子의 설명 속에는 ‘範圍’가 鑄物의 ‘本’과 같이 고정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본으로 삼아 모사하여 틀을 만드는 방식<sup>21)</sup>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範圍’의 대상이 비록 변화하는 상태에 있더라도 ‘範圍’를 통해 궁극적으로 모사해내고자 하는 것은 고정된 불변의 物性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이러한 物性에 기반하여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少陰人은 ‘口味地方’하여 樂性이 발현되는데<sup>22)</sup>,

天機 중의 地方은 ‘地’의 속성에 해당하여 우주의 物的 토대가 되는 불변의 요소를 말하는 것이므로<sup>23)</sup>, 외부 세계에 대한 少陰人의 이해는 확고부동한 物的 속성에 대한 견고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少陰人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은 範圍가 ‘本’이라는 고정된 대상을 상정하여 틀을 만들어 나간다는 특징과 닮아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範圍’는 少陰人이 타고난 性情에 기초하여 나타나는 인식과 행동의 특징과 많은 부분에서 연관되어 있으므로, 少陰人이 현실 속에서 範圍해나가는 과정에는 少陰人 특유의 稟性이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李濟馬는 少陰人의 ‘心之範圍’에 대한 관찰을 통해 少陰人의 稟性이 잘 발휘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피고자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3) ‘心之範圍’와 少陰人의 ‘不安定之心’

少陰人은 ‘範圍’를 통해 자신이 마주친 주위 상황과 조화를 이루어 자신의 性情도 또한 안정적으로 발현되도록 하여 스스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불변의 物的 차원을 중심으로 대상을 모사하여 일정한 틀을 만들어내는 ‘範圍’의 방식은 안정적으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반면, 유연성은 떨어지므로 새로운 변수의 개입과 같이 틀을 벗어난 역동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약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만약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範圍하지 않고 지나간 상황에 대한 ‘範圍’를 통해 만들어진 형식적인 틀에 의존하거나 집착할 경우, 상황과의 調和가 어그러짐으로써 자신의 감정도 과불급의 편차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감정의 변동이 심화되면 少陰人의 심리적 불안정을 야기하는데, 이것이 少陰人의 ‘不安定之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少陰人의 不安定之心은 ‘範圍’의 방식이 가지고 있는

20) 백유상. 少陰人과 仁性의 관계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 21(3). 2008. p.101. “少陰人은 物性에 밝은 樂性을 바탕으로 惻隱之心을 일으키며 …… 親親而仁民 중에서 親親이 仁을 완성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므로, 愛心을 일으키는 物性에 밝은 少陰人이 가장 실제적이며 구체적으로 仁을 발하여 실행할 수 있다.”

21) 모사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고정된 원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22) 송일병 외.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06. p.642. “樂性深確者, 少陰之口, 察於地方, 而樂衆人之相保也, 樂性非他, 味也.”

23) 백유상. 少陰人과 仁性의 관계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 21(3). 2008. p.97. “下焦는 物性이 드러나는 곳으로서 天機 중에서 地方이 배속되어 있다. 즉, 天地 宇宙의 物的 토대가 되는 땅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변하지 않으며 맛을 통하여 느낀다고 하였다. 물질은 불변적인 속성을 가지며 맛은 이러한 物性을 직접 접촉을 통하여 알아내는 것이다.”

본래적인 한계에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李濟馬도 少陰人의 내면에 不安定之心의 요인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고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sup>24)</sup>.

한편, 性情의 측면에서 少陰人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의 상황으로는 ‘喜好不定’의 양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李濟馬는 少陰人 性情의 특징에 대해 樂性深確하고 喜情促急하다고 하였는데 따라서 喜樂의 급격한 발현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性情 간의 轉化 관계를 살펴보면 少陰人의 경우 樂性이 極에 달하면 喜情으로 轉化되는데, 이 때 모든 喜情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樂極不成, 則喜好不定”에 대해서는 臟氣를 크게 상할 수 있다고 보고 크게 경계하였다<sup>25)</sup>.

본래의 樂性은 好善之心에 의해 발현되는 것이지만, ‘樂極不成’의 상황은 순수한 好善之心에 의해 발현된 樂性이 喜情으로 轉化하는 일반적인 樂極의 상황이 아니라 好善之心의 발현을 방해하는 慾心の 개입 때문에 樂性이 偏急하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개인적 욕망에 매몰되어 地方을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므로 현실 속의 대상의 모습은 자기가 집착하고<sup>26)</sup> 욕망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괴리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不成’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애착하는 대상의 모습이 나의 실존적 관계 속에서 현실화 되기를 바라는 극도의 기대감, 그리고 동시에 그 욕망에 미치지 못하는 괴리된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교차하면서 喜情이 절도에 맞게 발현되지 못하고 浪動하면서 극도의 불안정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喜好不定’이다<sup>27)</sup>.

24) 송일병 외.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06. p.730. “少陰人, 恒有不安定之心, 不安定之心寧靜, 則脾氣即活也.”

25) 송일병 외.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06. p.640. “少陰人, 樂極不成則喜好不定, …… 如此而動者, 無異於以刀割臟, 一次大動, 十年難復, 此死生壽夭之機關也, 不可不知也.”

26) 李濟馬가 말한 性의 ‘深着’도 이와 비슷한 의미로 볼 수 있다.(송일병 외.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06. p.723. “太陽人, 哀心深着, 則傷表氣, 怒心暴發, 則傷裡氣.”)

27) 대상에 대한 극단적인 기대감과 실망감이 순간순간 교대하는 양상으로 관찰된다.

‘範圍’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樂極不成, 則喜好不定”은 마음의 慾心으로 인해 상황을 폭넓게 인식하지 않아서 적절히 範圍하지 못하거나 이미 範圍한 결과로 만들어진 틀에 집착하여 새로이 範圍하지 않음으로써 변화하는 현실과 조화를 이루는 데에 실패한 것이다. 이로 인해 대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원만한 관계를 이루는 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少陰人 稟性에 본래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不安定之心의 요인이 ‘喜好’의 욕망을 따라 극단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4) ‘心之範圍’와 ‘君子寬平心’

少陰人이 君子寬平心을 가진다는 것은 ‘心之範圍’를 잘 해나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少陰人이 範圍한다는 것은 자신이 마주치는 대상의 특성을 관찰하여 그 대상 특유의 변화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며, 範圍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경우 대상에 대한 여유롭고 너그럽게 마음을 쓸 수 있게 되며 대상은 이를 편안하게 느끼게 된다. 표면적으로 이는 ‘배려’라고 인식되는데, 李濟馬는 이러한 마음씀을 ‘君子寬平心’이라고 하였다.

‘君子寬平心’에서 말한 ‘君子’는 『論語述而』에서 “子曰, 君子坦蕩蕩, 小人長戚戚.”<sup>28)</sup>이라 한 것에 의하면 넓고 너그러우며 공평한 마음, 즉 ‘寬平心’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sup>29)</sup>, 반대로 小人是 物慾에 휩쓸려 항상 걱정이 많다고 하였다<sup>30)</sup>. 또 『中庸』에서는 君子는 ‘時中’을 한다고 하였으며 小人是 거리낌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君子는 자신의 慾心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타인, 혹은 외부의 상황과 같은 공적인 기준에 따라 마음을 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小人是 자신의 慾心이라는 사적인 기준에 따라 마음을 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寬平心’의 ‘寬’은 緩의 의미로 팽팽한 것을 느슨하게 풀어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28) 申泰三 校閱. 論語集註. 서울. 明文堂. 1999. p.263.

29) 申泰三 校閱. 論語集註. 서울. 明文堂. 1999. p.263. “坦, 平也. 蕩蕩, 寬廣貌.”

30) 申泰三 校閱. 論語集註. 서울. 明文堂. 1999. p.263. “小人役於物, 故多憂戚.”



배려할 수 있다. ‘平’은 고르고 관관하여 한 쪽으로 기울지 않는 것으로, 자신이 처한 입장에만 매몰되지 않고 자신을 돌이켜보고 타인에게 미루어갈 수 있다.

따라서 少陰人이 ‘君子寬平心’을 쓴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욕심에 매몰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대상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心之範圍’를 해나가는 과정과 흡사하다. 兩者의 관계를 굳이 말한다면, 範圍를 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마음가짐의 특징이 ‘君子寬平心’이며, 반대로 ‘君子寬平心’을 통해 範圍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대상을 대할 때 주위 상황과 調和를 이루고 자신의 마음도 안정시킬 수 있다. 「四象人辨證論」에서 李濟馬는 少陰人の 不安定之心을 안정시키기 위해 ‘進一步’해야 한다고 하였는데<sup>31)</sup>, 이는 자신의 처한 상황만 안주하지 말고 한 발 짝 더 내딛어 밖으로 나와 대상을 바라보라는 의미로 이 역시 ‘君子寬平心’을 쓰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 5) 외현되는 심리적 태도를 통한 ‘心之範圍’ 여부의 판단

少陰人の ‘心之範圍’는 心에서 이루어지는 내면적인 작용이므로 範圍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타인이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나, ‘範圍’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의 심리적 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李濟馬는 ‘心之範圍’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綽綽한 태도와 耿耿한 태도로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물론 ‘태도’는 외표로 드러나는 것으로서 반드시 내면의 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지만,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태도’를 통해 내면의 정황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sup>32)</sup>. 여기에서는 少陰人の 性

情이라는 기본 조건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少陰人이 드러내는 태도를 관찰하여 ‘心之範圍’가 잘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조건 하에서 그러한 ‘태도’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시점에 그것이 지향하는 결과를 획득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으나, 장차 지향하는 결과로 이행하는 ‘추세’가 존재한다고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다<sup>33)</sup>. 현재 시점의 少陰人の 마음이 不安定한 상태라 하더라도 ‘心之範圍’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반영하는 태도가 나타난다면 일거에 안정되지 않더라도 짐으로써 장차 마음이 안정될 수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반대로 현재 마음이 겉으로 안정되어 보이는 경우도 적절한 태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장차 不安定之心이 안정되지 않고 더욱 심하게 발현될 것이라 예상 가능하다.

‘範圍’를 요약하면 대상을 관찰하고 그 특징을 파악하여 조화롭게 대응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範圍’가 잘 이루어지는가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대상의 모습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대상을 배려하려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愆心과 감정에 매몰되어 마음에서의 소통을 차단하고 기존의 틀을 고수하는지에 달려 있다. 이러한 마음의 흐름은 태도로 드러나고 태도는 관찰자에게 하나의 象으로 인식된다. 少陰人에게서 전자의 태도가 나타난다면 ‘心之範圍’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리라 추정할 수 있으며, 반대로 후자의 태도가 나타난다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李濟馬가 ‘綽綽’이라 한 것은 전자에 해당하는 태도의 象을 표현한 것이다. ‘綽綽’은 여유있는 모습을 의미하는데 少陰人이 마음을 열고 상대방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배려하려는 마음이 반영된 태도이다. 이러한 경우 실제로 不安定之心이 가라앉아 마음이 여유로운 상태인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편안하도록 배려하려는 마음이 태도로 나타난 것이다. 자신의 愆心과 감정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나타난 것으로서 ‘心之範圍’

31) 송일병 외.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06. p.731. “少陰人, 進一步而恒寧靜不安定之心.”

32)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학구적인 태도를 드러낸다고 하여 반드시 공부에 뜻을 두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으나, 이 학생에게 절실한 동기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면 충분히 그러한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33) 앞의 학생의 학구적인 태도가 나타났다고 하여 그 시점에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없으나, 장차 수준이 향상될 것임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 李濟馬는 후자에 해당하는 태도의 象을 ‘耿耿’이라고 하였다. ‘耿耿’은 밝게 드러나지만 위태롭고 불안정하며 초조한 모습으로서, 少陰인이 자신의 愆心에만 몰두하여 현실에 괴리된 채 망령된 계책을 세우는 데에 골몰하여 있으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마음에 私愆이 가득하고 상대방과의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心之範圍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추정할 수 있다.

### 3. 少陰人の ‘心之範圍’와 躁

#### 1) ‘심리적 躁’와 ‘外證으로서의 躁’

躁는 신체에서 나타나는 증후이면서도 그 자체로 心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심리적 躁’와 ‘外證으로서의 躁’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東醫寶鑑』 「寒傷寒煩躁」에서는 “躁則手掉足動, 起臥不安.”<sup>34)</sup>이라 하여 躁를 손발이 가만히 두지 못하고 흔들며 움직이는 ‘手掉足動’과, 그리고 정신적인 불안감을 느끼는 ‘起臥不安’의 양면을 포괄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手掉足動’은 신체에서 나타나는 ‘外證으로서의 躁’라고 할 수 있으며<sup>35)</sup>, ‘起臥不安’은 심리적인 현상으로서 ‘심리적 躁’라고 할 수 있다<sup>36)37)</sup>.

‘심리적 躁’는 少陰人の 性情 발현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起臥不安’의 증후는 少陰人에게 언제나 나타날 수 있는 ‘不安定之心’이 외현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며,

李濟馬도 陰盛隔陽과 藏厥에서 ‘喜好不定’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다. 다만 ‘심리적 躁’는 엄연히 하나의 병리적 현상으로서 不安定之心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고, 不安定之心이 寧靜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外證 躁’는 ‘심리적 躁’에 비해 현상적인 氣血 차원의 문제에 관련된 증후로서 不安定之心과 같은 심리적 요인만으로는 ‘外證 躁’의 발생을 설명하기 어렵다. 양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심리적 躁’가 少陰人の 선천적인 취약점인 不安定之心에 관련되어 있음을 볼 때, ‘심리적 躁’는 ‘外證 躁’에 비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반영하는 현상이므로 ‘外證 躁’는 ‘심리적 躁’가 氣血의 차원으로 과급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때 ‘심리적 躁’의 원인이 되는 不安定之心은 ‘心之範圍’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心之範圍’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심리적 躁’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2) 躁의 원인과 ‘心之範圍’

李濟馬는 “少陰人, 喜好不定而計窮力屈, 則心煩躁也.”<sup>38)</sup>라고 하여 躁를 포함한 心煩躁의 원인을 ‘喜好不定하여 計窮力屈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喜好不定은 少陰人の 喜情이 극단적으로 불안하게 발현되는 양상으로서 ‘심리적 躁’의 기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나, ‘外證 躁’의 측면을 포함하는 躁 전체 양상을 총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性情 차원의 문제가 현실적 차원의 문제로 과급되는 과정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外證 躁’와 같이 현실적인 차원의 문제를 야기하는 ‘計窮力屈’의 요인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性情 차원에서 喜好不定의 상태가 지속되면 ‘피가 다하고 힘이 꺾이는[計窮力屈]’ 상황이 되면 비로소 煩躁가 발현되는 것이다. ‘計’와 ‘力’은 모두 현실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수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현실적인 동력인 氣血 차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앞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 ‘喜好不定’의 상태는

34) 허준 지음, 진주표 주석, 新對譯 東醫寶鑑, 서울, 법민문화사, 2007, p.1104.

35) 李濟馬가 「四象人辨證論」에서 “少陰人, 有手足惋亂證也”라고 한 것은 ‘증후로서의 躁’의 한 양상을 포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송일병 외,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06, p.729.)

36) 李濟馬도 『東醫壽世保元甲午本』에서 ‘心躁’와 ‘証躁’로 구분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송일병 외 5인, 사상체질과 임상편람(東醫壽世保元甲午舊本), 서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2009, p.14. “今考更定, 朱肱所論藏厥, 以心躁而論之也, 少陰病最重証也, 李樾所論藏厥, 以証躁而論之也”)

37) 다만, 이처럼 ‘外證 躁’와 ‘심리적 躁’의 두 가지 측면을 나누어 보는 것은 ‘躁’를 심리적인 문제와 氣血 차원의 문제로 세분화해 분석하려는 것이며, 실제로는 별개의 증후가 아니라 ‘躁’라는 하나의 실제로 관찰되는 것이다.

38) 송일병 외,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06, p.663.

‘心之範圍’의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감정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가 된 것인데, 동시에 이는 이미 대상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心之範圍’가 잘 일어나기가 더욱 어려운 약순환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지속적으로 대상을 範圍하지 않는다면 대상과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좋은 피가 나오기 어려우므로 ‘計窮’하게 되며, 또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피를 가지고 현실에 부딪히면서 이를 운영해나가는 물리적인 힘이 지속적으로 소모되어 ‘力屈’에 이르게 된다. ‘피’와 ‘힘’이 모두 소진되어 현실적인 욕심으로서의 喜好<sup>39)</sup>를 추구할 방도가 사라지면서, 抑鬱된 慾心과 不安定한 마음으로 인한 답답함과 초조함이 심리적 차원을 넘어 氣血 차원의 外證으로 과급되는 것이 ‘心煩躁’이다. 즉, 煩躁의 가장 근원에는 ‘心之範圍’가 잘 이루어짐으로써 ‘不安定之心’이 안정되는지의 여부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한편, 煩과 躁는 서로 매우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증후이면서도 그 양상과 輕重에서 차이가 있는데, 煩에 비해 躁가 더욱 위중한 양상이다. 成無己는 煩에 대해서는 “心中鬱煩”이라고 하였으며, 躁에 대해서는 “氣外熱躁”라고 하였다<sup>40)</sup>.

煩은 心中에서 心氣가 鬱滯된 상태에서 답답해하는 것인데, 아직 대상을 향한 ‘喜好’의 慾心を 실현하고자 애쓰며 ‘힘’을 소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리적 不安定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 힘이 남아 버티고 있어 不安定이 전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은 상황이다.

반면, 躁는 氣가 외부로 달아나면서 외부에 假熱이 나타나며 手足을 躁動하는 것인데, ‘힘’이 완전히 꺾여서 慾心を 감당치 못하여 ‘不定’의 심리 상태가 더욱 가중되어 ‘심리적 躁’가 나타나며, 氣血의 차원으로 과급되어 ‘外證 躁’가 나타나게 된다. 躁는 쉽게 말하면 ‘不安定’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少陰인이 본래 지닌 약점인 不安定한 심리가 심리적 차원과 氣血의 차원 양면에서 확연히 노출되는 증후로

서 煩에 비해 더욱 위중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 3) 藏厥, 陰盛隔陽에서의 躁의 機轉

少陰人 裏病의 危證인 藏厥, 陰盛隔陽은 공통적으로 躁가 중심이 된다. 藏厥은 躁가 발생하여 잠시도 안정되지 않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고<sup>41)</sup>, 陰盛隔陽에서는 “但躁不煩, 及先躁後煩”라 하여 躁가 역시 중심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단순히 手足을 요동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흙탕이나 우물로 뛰어들려고 하는 등 ‘大躁’라고 표현되는 극심한 躁의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sup>42)</sup>.

藏厥, 陰盛隔陽은 공통적으로 陽氣의 上升이 단절되어 발생한다. 李梴은 藏厥에 대해 “乃厥陰眞藏氣絕, 故曰藏厥”<sup>43)</sup>라고 하여 眞藏氣가 단절되는 病機에 기인하여 藏厥이라 명명하였다고 설명하였고, 成無己는 陰盛隔陽에 대해 “此氣欲絕而爭, 譬如燈將滅而暴明.”<sup>44)</sup>이라 하여 氣가 끊어지려는 상황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설명하면서 回光返照의 상황에 비유하였다. 또한 ‘陰盛隔陽’이라는 병명 자체도 陰氣가 極盛하여 陽氣의 上升을 隔絶시키는 病理機轉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藏厥과 陰盛隔陽의 기본적인 증후인 厥을 살펴보면 ‘陰陽氣不相順接’의 기전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陽氣의 上升이 단절되는 것은 少陰人の 腎局 陽氣와 脾局 陽氣의 接續이 끊어진 것을 의미하며, 이에 脾局 陽氣가 소진된다. 이처럼 陽氣 상승이 단절되어 脾局 陽氣가 소진되는 것은 앞서 ‘計窮力屈’이라고 언급된 정황과 일치하

39) 송일병 외.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06. p.663. “喜好者, 所慾也”  
 40) 송일병 외.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06. p.663. “成無己曰, 煩, 謂心中鬱煩也, 躁, 謂氣外熱躁也.”

41) 송일병 외.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06. p.662. “朱肱曰, 躁無暫定而厥者, 爲藏厥.”  
 42) 송일병 외.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06. p.663. “朱肱曰, 病人身冷, 脈沈細而疾, 煩躁而不飲水者, 陰盛隔陽也. 若飲水者, 非此證也, 厥陰病, 渴欲飲水者, 小小與之愈.”, “成無己曰, …… 雖大躁, 欲於泥水中臥, 但水不得入口, 是也.”, “李梴曰, 傷寒, 陰盛隔陽, 其證身冷反躁, 欲投井中, 唇青面黑, 渴欲飲水, 復吐, 大便自利黑水, 六脈沈細而疾, 或無脈, 陰盛隔陽, 大虛證也. 宜霹靂散. 又曰, 厥逆煩躁者, 不治.”  
 43) 송일병 외.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06. p.663.  
 44) 송일병 외.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06. p.663.

는 것으로서 煩躁의 증후를 발현시키는데,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陽氣가 상승하여 접속되지 못하여 中上焦의 脾胃陽氣가 소진되면서 心의 陽氣도 역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心의 의지를 펼쳐 현실을 운영할 수 있는 힘이 꺾이는 것이므로 ‘計窮力屈’의 상황과 같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心煩躁가 일어나게 된다. 즉, 煩躁는 陽氣의 상승 여부에 따른 心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증후로서 병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다.

만약 陽氣의 접속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완전히 ‘氣絶’의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脾胃의 陽氣가 有餘하여 煩이 나타나지만, 거의 끊어지려하는 ‘氣欲絶’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躁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氣欲絶’의 단계에 이르러 躁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이나마 氣의 接續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躁가 안정될 수 있으나, 接續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躁가 쉬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특히 少陰人病 중에서도 극히 위중한 병증인 藏厥, 陰盛隔陽과 같이 陽氣의 상승이 거의 단절되어 接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심각한 양상의 躁가 발현된다. 藏厥에서 잠시도 안정되지 않는 양상의 躁가 나타나는 것은 陽氣의 단절이 전혀 회복되지 않는 것이다. 陰盛格陽에서 ‘大躁’라고 지칭한 躁의 양상은 陽氣가 상승하지 못하고 외부로 暴脫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의 躁는 모두 지극한 危證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 4. ‘心之範圍’를 통한 少陰人病 危證의 예후 판단

藏厥, 陰盛隔陽의 可治, 不可治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 증후인 躁를 살펴야 하며, 그 요점은 ‘心之範圍’를 점치는 데에 있다. 躁 중에서도 ‘심리적 躁’가 ‘外證 躁’에 비해 躁의 근본적인 원인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外證 躁’의 예후에 대한 판단도 ‘심리적 躁’의 관찰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躁의 有定無定’은 ‘心의 有定無定’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心의 有定無定’은 不

安定之心, 혹은 喜好不定의 감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心之範圍’가 잘 이루어지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李濟馬는 궁극적으로 ‘躁의 有定無定’을 관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心之範圍有定無定’을 점쳐야 한다고 한 것이다<sup>45)</sup>. 여기에서 ‘점친다’고 한 것은 ‘心之範圍’란 心에서 일어나는 내면적, 주관적인 작용으로서 외부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므로 주로 외부로 드러나는 태도에서 象을 파악하여 추론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sup>46)</sup>.

李濟馬는 綽綽, 耿耿의 象을 기준으로 삼아 관찰하여 ‘心之範圍’의 여부를 점쳐 ‘躁의 有定無定’을 예측하였다<sup>47)</sup>. ‘心之範圍’가 綽綽하면 ‘심리적 躁’가 안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外證 躁’도 안정될 여지가 있다. ‘心之範圍’가 綽綽한 것은 위급한 병세에도 불구하고 여유를 갖고 대상을 배려하는 태도가 나타난 것이므로 ‘心之範圍’가 잘 이루어짐으로써 不安定한 마음이 해소되어 ‘심리적 躁’가 안정될 수 있다. 또, ‘심리적 躁’가 안정될 수 있다면 ‘外證 躁’ 역시 안정될 수 있다. 반대로 ‘心之範圍’가 耿耿하면 ‘심리적 躁’가 안정될 수 없고 이에 따라 ‘外證 躁’ 역시 안정될 여지가 없다. ‘心之範圍’가 耿耿한 것은 자신의 감정과 慾心에 골몰하여 대상과 단절된 상태로서 ‘心之範圍’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不安定이 가중되므로 ‘심리적 躁’ 역시 해소될 수 없다. ‘심리적 躁’가 해소되지 않으므로 ‘外證 躁’ 역시 안정될 수 없다.

이에 덧붙여, 실제 藏厥, 陰盛隔陽과 같은 실제 危證의 상황에서는 아주 잠시라도[一半時刻] 綽綽한 모습이 나타나 ‘心之範圍’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치료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sup>48)</sup>. 藏厥, 陰盛隔陽에서는 기본적으로 심각한

45) 송일병 외.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06. p.664.  
46) 송일병 외.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06. p.664. “觀少陰人病危證者, 當觀於躁之有定無定也, 欲觀躁之有定無定, 則必占心之範圍有定無定也.”  
47) 송일병 외.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06. p.664. “心之範圍綽綽者, 心之有定而躁之有定也, 心之範圍耿耿者, 心之無定而躁之無定也.”  
48) 송일병 외.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06.

양상의 躁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 병증의 성격은 한 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危證이므로 ‘心之範圍’의 여부를 점친 결과가 ‘躁의 有定’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다려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耿耿忽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一半時刻’이라도 綽綽卓卓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心之範圍’가 이루어지고 있어 不安定이 해소되는 흐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치료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 Ⅲ. 考察

#### 1. ‘心之範圍’ 관찰의 임상적 의의

##### 1) 기존 藏厥, 陰盛隔陽 기술의 불명확성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에서 인용한 기존 醫家들의 藏厥, 陰盛隔陽에 대한 기술에서는 可治, 不可治의 여부에 대한 진술이 엇갈린다. 藏厥에 대해 朱肱은 治法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는데, 李梴은 仲景 당시에는 治法이 없었다고 하면서 四逆湯, 三味蓼黃湯으로 치료한 경험을 제시하였다<sup>49)</sup>. 그러나 두 처방은 張仲景 역시 운용하던 것임을 감안하면 仲景이 그와 같은 治法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다소 의문이 남는다.

또, 陰盛隔陽에 대해 朱肱은 治法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成無己는 ‘但躁不煩, 及先躁後煩’에 대해 ‘皆不可治’라고 하였고, 李梴의 글에서 ‘厥煩躁者, 不治’라고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李梴은 陰盛隔陽을 霹靂散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는데<sup>50)</sup>, 陰盛隔陽을 ‘不可治’로 본 것에 상반되는 언급이다. 그러나 霹靂散 역시 附子 單味로 된 처방으로서 張仲景, 朱肱, 成無己 등이 운용할 수 있었던 처방이기에 藏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말 기존의 醫家들이 동일한 병에 治法을 제시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p.664. “心雖耿耿忽忽, 猶有一半時刻綽綽卓卓, 則其病可治.”

49) 송일병 외.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06. p.663. “仲景無治法, 而四逆湯冷飲救之. 又少陰病, 厥而吐利發躁者, 亦不治而三味蓼黃湯救之.”

50) 송일병 외.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06. p.663. “李梴曰, 傷寒, 陰盛隔陽, 其證身冷反躁, 欲投井中, 唇青面黑, 渴欲飲水, 復吐, 大便自利黑水, 六脈沈細而疾, 或無脈, 陰盛隔陽, 大虛證也. 宜霹靂散.”

다.

이처럼 李濟馬는 두 병증의 치료 가능성에 대한 엇갈리는 진술들을 함께 인용하였는데 이러한 사항을 분명히 인용 시에 인지하였을 것이다. 可治와 不可治에 대한 각 醫家들의 진술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상충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가설로서, 李濟馬가 기존 의가들의 藏厥, 陰盛隔陽에 대한 기술 속에 다소 가벼운 병태로서 치료가 가능했던 경우와 보다 위태로운 병태로서 치료가 불가능했던 경우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다고 보았을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각 醫家들이 경험한 병증들은 다소 간의 병세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으리라는 것이다. 李濟馬도 『東醫壽世保元甲午本』에서 朱肱이 기술한 藏厥과 李梴이 기술한 藏厥 사이에 ‘最重証’과 ‘非最重証’으로 다소 병세의 경중의 차이가 있다고 평가한 것을 보면 이러한 가설이 성립할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sup>51)</sup>.

藏厥, 陰盛隔陽은 인체의 元氣가 끊어지려고 하는 매우 위중하고 급박한 증후로서 극히 미세한 機微에 의해 死生이 결정되므로, 外證에 대한 관찰만으로는 병증의 可治, 不可治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을 기술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李濟馬는 보다 미묘한 차원에 해당하는 心의 愛惡所欲과 喜怒哀樂의 偏着<sup>52)</sup>을 중심으로 병의 원인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므로 少陰人の ‘心之範圍’를 통해 少陰人病의 발생을 이해하고 치료 가능성을 변별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예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2) 危證에 대한 예후 판단의 현실적인 기준 제시

朱肱과 李梴은 ‘躁無暫定’, ‘發躁無休息時’와 같이 躁가 안정되지 않는 상황을 특히 엄중하게 인식하였으며, 李濟馬도 이러한 판단을 수용하여 少陰人病

51) 송일병 외 5인. 사상체질과 임상편담(東醫壽世保元甲午舊本). 서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2009. p.14. “今考更定, 朱肱所論藏厥, 以心躁而論之也, 少陰病最重証也. 李梴所論藏厥, 以証躁而論之也, 亦是少陰病重証而非最重証也.”

52) 송일병 외.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06. p.649. “蓋古之醫師, 不知心之愛惡所欲, 喜怒哀樂偏着者, 爲病.”

危證에서 일차적으로 躁의 有定無定을 관찰하여 병의 예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르면 躁가 ‘暫定’하거나 ‘休息’ 할 수 있다면 치료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躁가 有定할 수 있다는 것은 잠시나마 하초 腎局의 陽氣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無定은 전혀 陽氣가 상승하지 못하고 잔존하는 陽氣가 이탈하는 것이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목전의 환자에게서 躁가 일어나는 상황은 지극히 위험한 상황으로서 이때 ‘暫定’이나 ‘休息’을 기다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일이므로, 躁의 有定無定을 예후의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소극적이며 위험한 병태를 마주한 임상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 이에 李濟馬는 다시 躁의 有定無定을 예측할 수 있는 심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心之範圍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 3) 보편적인 少陰人病 危證의 판단 기준

‘心之範圍’는 藏厥, 陰盛隔陽에 대한 예후 판단의 기준으로 제기된 것이지만 李濟馬는 이를 少陰人病 危證 전반에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sup>53)</sup>. 李濟馬는 少陰人 表病의 亡陽病에 대해서도 ‘陰盛格陽’의 病機를 통해 설명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裏病의 陰盛隔陽과 같은 의미로서 表裏病에서 나타나는 危證의 機轉이 大同小異함을 나타낸다.

‘心之範圍’는 少陰人의 性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少陰人의 감정과 언행에 적절한 틀을 부여하여 안정적으로 人事를 해나갈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少陰人의 性情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요소인 만큼 ‘心之範圍’가 잘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는 모든 少陰人病의 예후를 판단하는 데에 기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危證의 경우 그

의미를 갖게 된다.

躁는 ‘心之範圍’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항상 나타나는 不安定의 심리가 최종적으로 노출되는 少陰人病의 惡候라고 할 수 있어 역시 少陰人의 일반적인 病理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心之範圍’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쳐 躁의 有定無定을 예측하는 것은 모든 少陰人病의 危證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2. 少陰人 陽氣 上升과 ‘心之範圍’의 관련성

少陰人의 陽氣 上升의 흐름이 단절되었다는 것은 少陰人의 脾局 陽氣가 소진된 것을 의미한다. 少陰人은 腎局의 陽氣는 자연스럽게 상승하여 脾局의 陽氣에 연결하게 됨으로써 少陰人의 正氣인 脾局의 陽氣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탱한다<sup>54)</sup>. 그러므로 少陰人의 脾局 陽氣의 근원은 실제로는 腎局의 陽氣라고 할 수 있다. 腎局 陽氣가 상승하는 세력이 약화될 경우 脾局 陽氣와의 連接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脾局의 陽氣가 소진되며 陽氣 上升의 흐름 역시 완전히 끊어지게 된다. 반면 少陰人의 樂性이 순조롭게 발동하면 자연스럽게 하강하여 氣가 腎으로 흘러 少陰人 陽氣의 근원인 腎局 陽氣가 성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腎局 陽氣는 자연스럽게 상승하여 脾局에 연결되어 脾局 陽氣의 활동을 지탱하게 된다<sup>55)</sup>.

한편, 少陰人의 性情은 喜情促急하여 기본적으로 脾를 손상시키는 경향성을 나타낸다<sup>56)</sup>. 더욱이 ‘喜好不定’과 같이 喜情이 불안정하게 발현되면 氣가 하강하여 하부에 쏠리게 되어 脾가 상하게 된다고 하였다<sup>57)</sup>. 脾가 상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氣가 하

53) 『東醫壽世保元甲午本』에서는 “觀少陰病者，當觀於躁之有定無定也，欲觀躁之有定無定，則當觀心之範圍有定無定也。”라 하여 少陰病의 예후를 관찰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辛丑本에서는 少陰人 危證에 대한 것으로 확장하였다.(송일병 외 5인. 사상체질과 임상편람(東醫壽世保元甲午舊本). 서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2009. p.14.)

54) 腎局 陽氣의 이러한 흐름을 “裏熱撐支之勢”라고 언급하였다.(송일병 외.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06. p.656.)

55) 송일병 외.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06. p.639. “喜樂之氣順動，則緩安而下墜，……喜樂之氣，陰也，順動則順而下墜.”

56) 송일병 외.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06. p.639. “少陰人，樂性深確而喜情促急，……喜情促急則氣激脾而脾益削.”

57) 송일병 외.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06.

강하는 흐름이 강하여 腎局 陽氣가 상승하지 못하고 脾局 陽氣가 소진되는 것을 말한다. 즉 少陰人の 喜樂의 性情이 절도를 잃게 되면 脾局 陽氣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만약, 少陰人の ‘心之範圍’가 잘 이루어지면 喜樂의 性情이 절도에 맞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陽氣가 순조롭게 상승할 수 있게 된다. ‘範圍’를 잘 한다는 것은 상황의 변화를 끊임없이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며, 또 慾心이 개입해 樂性이 偏急하지 않고 순조롭고 원활하게 발현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에 따라 少陰人の 陽氣가 원활히 상승하여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心之範圍’가 잘 이루어질 경우 陽氣 상승이 단절되어 나타나는 藏厥, 陰盛隔陽을 비롯한 少陰人病의 危證에서 可治의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 躁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少陰人の 태도가 綽綽 卓卓한 것을 통해 ‘心之範圍’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론하였는데, ‘心之範圍’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喜樂의 性情이 상황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陽氣가 순조롭게 상승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만 危證의 발병 機轉에는 陽氣 상승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를 隔絶시키는 極盛한 陰邪가 함께 관련되어 있으므로, 陽氣가 상승하여 脾局에 接續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갖추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陽氣의 상승 및 陰邪의 제거를 목표로 한 적절한 用藥을 통해 신중하게 치료해야 한다<sup>58)</sup>.

#### IV. 結論

『東醫壽世保元』의 少陰人 病證論에서 사용된 ‘心之範圍’의 개념은 현대인의 생활 언어에서 사용되는 範圍라는 단어의 일반적 의미와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範圍의 연원을 검토해보고 이를 통해 少陰人 病證의 예후 판단에 활용된 心之範圍의 의미를 살펴보

았다. 이 결과로 보면 ‘範圍’는 性情 차원에만 국한된 술어가 아니며 少陰人이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방식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少陰人の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藏厥, 陰盛隔陽과 같은 危證을 인식한 李濟馬의 견해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실제로 病證의 실체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는데에 유용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周易繫辭傳』에서 말한 ‘範圍’는 인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세계의 변화 양상을 인식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경향성을 본뜬 틀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외부 세계 변화의 週不及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萬物을 보호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틀을 형식적 규범으로 고착화하면 안되며 열린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範圍해 나가야 한다는 점, 그리고 관념성을 배제하고 철저히 실재하는 사물에 대한 관찰에 근거하여 範圍해야 한다는 점이 範圍가 의미를 갖기 위해 주의할 사항으로 제시되었다.
2. 기존 『周易』의 範圍는 聖인이 天地의 변화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개인 차원에서도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조화되도록 하여 욕망과 감정, 행동 등을 조절하는 것도 範圍의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少陰人の ‘心之範圍’를 이해할 수 있다. 단, 개인적 차원의 ‘範圍’는 개인의 욕심에 국한되지 않고 끊임없이 ‘範圍’하여 확충해나가는 것을 전제로 할 때 『周易』에서 말한 聖人の 範圍의 의미와 이어질 수 있다.
3. 少陰人の 性情 중의 樂性은 事物의 物的 속성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惻隱之心을 일으켜 事物을 아끼고 보호해 나가려는 것이며, 그 樂性의 대상인 地方은 우주의 物的 토대가 되는 불변의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範圍의 목적과 대상의 특성과 부합하므로 李濟馬가 少陰人の ‘心之範圍’에 대한 관찰을 통해 少陰人の 稟性이 잘

p.639. “喜樂之氣逆動，則浪發而並於下也，…… 下降之氣逆動而並於下，則脾肺傷。”  
 58) 송일병 외.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06. p.664. “可治者，用薑附而可效也.”

- 발휘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피고자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 '範圍'의 방식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한계는 少陰人の 불안정한 심리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範圍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李濟馬가 '不安定之心', 그리고 "樂極不成, 則喜好不定"으로 설명한 불안정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불안정은 병증으로서의 '심리적 躁'와 '外證 躁'를 발현시키는 본질적인 원인이 되므로, 躁의 가장 근원에는 '心之範圍'의 여부가 자리잡고 있다.
  5. 躁의 有定無定은 陰盛隔陽과 藏厥의 핵심 기전인 陽氣가 상승하여 脾胃에 접속되는지의 여부를 반영하여 병증 전체의 예후를 판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躁의 有定無定은 현실적으로는 유용한 기준이 되기 어려우므로 보다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심리적 躁'는 '外證 躁'에 비해 躁의 근본적인 원인을 반영하고 있으며, '심리적 躁'는 心의 有定無定の 문제, 즉 不安定之心을 안정시키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또한 不安定之心을 안정시키는 문제는 心之範圍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躁의 有定無定은 心之範圍의 여부에 달려있다.
  6. 이를 위해 心之範圍를 살펴야 하는데, 그것을 보기 위한 방법은 少陰人이 걸으로 드러내는 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만약 아주 짧은 시간만이라도 綽綽卓卓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心之範圍'가 이루어지고 있어 不安定이 해소되는 흐름이 있는 것이며, 동시에 陽氣의 흐름이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少陰人 危證의 치료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3. 송일병 외.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06.
  4. 申泰三 校閱. 論語集註. 서울. 明文堂. 1999.
  5. 송일병 외 5인. 사상체질과 임상편람(東醫壽世保元甲午舊本). 서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2009.
  6. 허준 지음, 진주표 주석. 新對譯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1104.
  7. 백유상. 少陰人과 仁性의 관계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1(3). 2008.
  8. 朱熹. 近思錄. 동양고전종합DB. [cited May 9, 2020]; Available from: [http://db.cyberseodang.or.kr/front/alphaList/BookMain.do?bnCode=jti\\_3a0403&titleId=C598@](http://db.cyberseodang.or.kr/front/alphaList/BookMain.do?bnCode=jti_3a0403&titleId=C598@)
  9. 朱熹. 近思錄. 동양고전종합DB. [cited May 9, 2020]; Available from: [http://db.cyberseodang.or.kr/front/alphaList/BookMain.do?bnCode=jti\\_3a0403&titleId=C598@](http://db.cyberseodang.or.kr/front/alphaList/BookMain.do?bnCode=jti_3a0403&titleId=C598@)

## References

1. 金赫濟 校閱. 原本備旨 大學中庸(中庸). 서울. 明文堂. 2010.
2. 明文堂編輯部 校閱. 原本周易. 서울. 明文堂. 1999.